

대행 스님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버린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나 내려온 역사로부터 현재의 불교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는 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부처님 법이 따로 있지 않고 생활이라는 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라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라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피를 흘렸으며 아픔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볼 때에 아주 슬픔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는 누가 가져왔던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 유교로만 나갔기 때문에 도교를 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아서 국력도 대처 못 했고, 반면에 무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기는 그때 말마따나 창이나 칼이나 활을, 그나마도 여유 있게 대처를 못 했던 겁니다. 승군(僧軍)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승군도 그러하지마는 우리 백성들도 역시 무기가 모자랐고, 무기도 모자랐지만 반면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몸으로 대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앉아서 버튼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불교가 따로 있고 우리 생활이 따로 있고 어느 종교든지 따로 있다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활 법이, 생활 행이 그냥 유(有)의 행이라고 볼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증득한다면 무(無)의 행과 유의 행이 첨보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그 여건이 생기지 못할 때 우린 뭘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대처를 못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국력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의 행으로써, 유의 법으로써 대처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꼭 기계로써, 물질로써 해결을 해야만이 100%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을 쏴 올리고 인공위성을 쏴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70%, 80%밖에는 되지 않을 테죠. 100%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마는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을 병원에 맡기면 의사가 나를 고쳐주겠지 하고 밀어 던지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아무 데나 내맡기는 그런 습관이 많고, 또 이차적으로는 내 가정이 가난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삽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다 대처하겠지 하고 전부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며,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끌고 다니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은 내 마음이지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자식지간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참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할 때에, 우리는 육안으로 눈을 뜨고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는 바로 내 한마음 한 눈이라면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들을 수 있고, 일체 전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스울지 모르지마는 '부처님 법' 이러면 그저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기복으로서 내가 잘되게 해 달라고 하고, 또는 물건을 갖다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물건으로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깐 해 주실 테지 하는 의지심, 그런 것도 여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억겁을 거쳐서, 광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 나퉈 가면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끌어온 자기의 주인공의 뜻을 배신 아닌 배신을 하면서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찾아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나 아닌 누가 하겠지'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불법에서는 나와 사회가 한 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일이요, 그것이 다 사람이 하는 노릇입니다. 역사를 태평성대로 끌고 오는 것도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여건이 부족하다면 예전보다도 더 처참한 역사를 가져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천부적으로 천연적으로 만법의 근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십구 년 동안 그렇게 행을 보여 주셨고 법을 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행을 제대로 못 한대서야 어떻게 불제자라고 하며, 어떻게 국민이라고 하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뜻과 더불어 둘이 아닐 때, 또 불과 법이 둘이 아닐 때 승보는 그렇게 부지런히,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고 살래야 살 시간도 없다 하게 되지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 뜻은 몰락 놓고 뛰어넘어라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고 살래야 살 시간도 없다고 하나? 이 시대와 더불어 우주의 근본 삼천대천세계는 조금도 쉬지 않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항상 끄달리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걸리면 걸리는 대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한 치도 던져 보지도 못하고 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엔 없는데, 그러면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좌천이 되고,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승진해서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고통은 영원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부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자성을 깨쳐서 유의 법, 무의 법을 한 손에 쥐고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적인 문명과 문화, 정치, 사회가 다 붙어 돌아갈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 역력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알면 국력이 튼튼치 못하다거나 수효가 적다거나 마음이 부족하다 할 때 주장자 하나를 던져서 그 수효대로 수만 개의 주장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일 수 있고 낼 수 있는 그 자유자재권은 여러분에게 다 달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손가락 하나 같은 나라에 살면서 그나마 또 반을 쪼개서 사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한대서야 어디 자기 몸 하나인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대인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